

급성 기관지염

이화대학 부속병원 내과 김 상 희

정의

급성 기관지염이라 함은 기관지의 급성염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이러스 세균 혹은 자극성 깨스의 흡입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인

1. 바이러스

호흡氣道를 침습하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기관지염이 가장 흔하다. 따라서 급성호흡기 감염의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일이 빈번하다. 인플루엔자, 파타-인플루엔자, 아데노(adeno) 바이러스 등이 그 예이다.

2. 세균

정상 기관지에 세균이 일차적 감염을 일으키는 일은 백일해의 경우 외에는 대단히 드물고 기관지에 다른 병변이 있을때에 이차적으로 세균성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일은 비교적 빈번하다. 즉 호흡기계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때 급성세균성 기관지염을

함병하는 수가 있다. 또 기관지나 폐의 만성질환 예컨대 만성기관지염, 폐기증, 기관지천식 혹은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에 이차적인 세균성 급성기관지염이 잘 오고 그밖에 기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쇠약한 노인등에도 잘 온다. 이러한 경우 주로 관계하는 세균은 폐열구균과 인플루엔자(Influenza virus) 바이러스균이다.

3. 자극성 깨스

염소깨스, 아황산깨스, 이산화질소 같은 자극성이 심한 깨스를 흡입하던 기관지 점막의 급성염증이 발생한다.

증상

급성기관지염은 흔히 상기도(上氣道) 감염의 증세를 가지고 발병한다. 권태감과 전신의 근육통 또 두통이 있을 수 있다. 輕한 咽喉痛과 코풀이 나기도 한다. 수시간 내지 수일이 지나면 드디어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가래없이 나다가 곧

粘液과膿이 섞인 가래를 뱉게되고 기침할 때면 흉골아래가 따갑고 아픈 수도 있다. 대개의 경우 발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일정치 않다. 합병증이 없는 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학적 소견에는 특기할 것이 없다. 인후가 간혹 발적되어 있고 폐의 청진 및 타진상으로도 정상이다. 간혹 전폐야에서 짧은 습성「발」을 듣는 수가 있다. 결사실 성적으로 백혈구수의 경한 증가를 볼 수 있고 흉부 엑스선 사진은 합병증이 없는 한 정상이다.

진 단

급성기관지염의 진단은 대개 용이하다. 문제는 폐열이 합병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심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는 대개 폐열이 병발하고 이는 이학적 소견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일이 많다.

노인이나 혼수에 빠진 환자에 있어서는 기침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진단이 곤란한 수가 있다.

치 료

1. 폐나 기관지에 만성 질병이 본래 없는 환자의 급성기관지염은 안정과 대증요법으로 충분하다. 실내의 공기는 따뜻하고 습한 것이 좋고「수증기」흡입도 좋다. 기침에는

codein 을 3내지 4시간 간격으로 15mg 씩 쓰고 수면장애에는 진정제를 준다. 이런 경우는 대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므로, 화농성 합병증이 병발하였거나, 완고하게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 외에는 항생제는 안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Procaine penicillin 60 단단위를 12시간 간격으로 혹은 Tetracycline 250mg 을 6시간 간격으로 사용한다.

2. 폐 및 기관지에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차적 세균감염이 대개 원인이므로 항생제요법을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기침반사가 잠겨내었다면 기침이 불충분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기침하기를 권하고 끈적 끈적한 가래는 흡입기로 제거해 준다. 혼수상태의 환자에는 suction 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기관절개를 하기도 한다

예 후

건강하던 사람에게 발생한 급성기관지염은 합병증이 없는 한 저절로 낫는 병이고 치명률도 없다. 폐열을 병발한 급성기관지염은 年老한 환자 특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의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일이 흔하다. 이는 기관지 분비물에 의하여 기도 폐쇄로 질식사하게 되는 때문이다.